[재미 한미協] "재미동포, 베트남 이민자보다 못살아"

한국계 미국인과 영주권자가 미국 내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보다 가난하고 교육수준도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미 한인 교육봉사단체 한미연합회(KAC)의 센서스정보센터(소장 유의영)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5만3502달러로, 필리핀계(8만946달러), 중국계(8만518달러), 인도계(7만5677달러), 베트남계(5만4745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계 이민자의 소득은 아시아계 평균치인 7만2224달러는 물론 전체 평균(5만5146달러)에도 못 미쳤다.

학력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3세의 대졸 이상 비율은 61.8%로, 대만계(86.0%), 중국계(68.7%), 인도계(65.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1세의 경우도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48.9%로, 대만(73.9%), 일본(54.0%)은 물론 필리핀(54.0%)과 중국(50.2%)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계 이민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것이다.

센서스정보센터의 유의영 소장(칼 스테이트대 교수 · 사회학)은 "공직 기피와 자영업 의존 등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명문 공 · 사립대만을 고집해 2세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16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한국계가 12.8%로 전체 평균치 6.2%를 훨씬 웃돈 반면, 공무원 비율은 6.7%로 필리핀계(13.9%), 인도계(13.0%)보다 낮았다.

한국계 이민자의 빈곤율도 뉴욕주 15.8%, 뉴저지주 10.3%, 하와이주 16.6%로 모든 인종을 망라한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미국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센서스2000 중 뉴욕 · 뉴저지 · 하와이주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가구당 연간 소득은 최저값과 최고값의 가운데 수치를 취하는 메디안 평균으로 계산했다.

(로스앤젤레스 = 연합)

입력 : 2003.06.05 19:05 27'

100자평 이메일 프린트 기사목록 이전페이지 위로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24)건입니다. 전체 100자평 보기 | 100자평 쓰기

▶ 독자추천 100자평

조천제(hibiya) 등록일 : 06/05/2003 19:42:13 추천수 : 15

세금만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런 결과 안나오죠..

김 영환(youngkim33) 등록일 : 06/05/2003 23:59:07 추천수 : 4

이 조사는 New Jersey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고 이곳은 한국인이 40만명이상이 Korea Town을 이루고 있죠! 보도자료에 따른 수치는 사실이며 한국인의 미국사회 적응의 문제가 있고, 소득은 미국사회를 근간으로 획득해야지 같은 민족으로부터 획득할려는 쉬운 생각으로 기인한현상입니다. 우린 왜 미국으로 가는 것만이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이라 생각이지, 어떻게가 문제인데!

이승식(mi6mi6) 등록일 : 06/05/2003 23:36:47 추천수 : 4

조사한사람 바보아닌가요? 아시아이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왜빼지요? 하여간에 대통령부터 몸소실천하는 탈세의 귀재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가도 당당히 탈세하는군요.

민영기(ymin001) 등록일 : 06/05/2003 22:39:48 추천수 : 4

1. 자영업자가 많아서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2. 전업주부의 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미국인 또는 중국인 교수부인 중에서 전업주부는 거의 없는데 한국인 교수부인은 절반 이상이 전업주부입니다.

이재환(jhlee5812) 등록일 : 06/05/2003 23:03:20 추천수 : 3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대로 소득보고를 안해서 나온 통계다. 미국의 골프장은 한국인이 점령했고 한인모임에 가보면 고급차 전시장을 방불한다.

chosun.com EXCLUSIVE

- 최태원회장 "휴대폰게임 못해 답답"
- '혁명과 사랑의 속삭임' 파리 카페
- '뒷골목 CCTV설치' 강남구 공청회
- 시위…철시…'부안은 전쟁중'
- "저도 납북자가족…정말 애가 탑니다"
- 'PCS망령'서 해방된 이석채前장관
- 조선족교회 "불법체류 합법화해야"
- 김근태 "한국은 정직 비웃는 야만사회"

조선닷컴 프리미엄

윤효의 No Love, No Sex 15+
<52> 명쾌한 욕망이 익어갈 때

[안도현 시인의 러브레터]
제비꽃

[단칼]
담뱃값 인상,도랑치고...

[줌마클럽]
온천 가고 싶은 남자...

조선일보 못참겠다

- 희망돼지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 내가 안티조선을 선언한 이유

이 기사는 논쟁중!

- 위도주민 현금보상 찬반논쟁
- '김일성동영상'재게시 찬반논쟁

기자칼럼

- 전지현은 섹시하다? (이동진)
- 도박사日, 서재응 승리?! (민훈기)
-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정병선)
- 톤을 말하기 전에... (채승우)
- 자동차 냉각수 관리법 <우상철>
- 피스컵 삐딱하게 보기 <노완동>
- 무스코카에서의 사념 <최종욱>

Copyright (c) 2003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